

후지보 홀딩스 - 체제개선 상당성과 올려, 반전공세 개시

후지보 홀딩스는 2007년 9월 1일자로 섬유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재편(再編)에 대하여, “아직 일부가 남아 있기는 하나, 체질개선은 거의 끝나가며, 소재사업에 적합한 구조로 만들었다.”고 재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2007년 하반기부터는 “반전공세(反轉攻勢)를 시작하였다.”고 말하였다. 2007년 하반기에는 오이다(大分)공장의 체제를 강화하여, 남은 과제로 되어 있는 실(絲) 사업을 개선하면서 해외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동사는 9월 1일자로 섬유사업회사를 재편하면서, (구) 후지보 텍스타일의 일부사업을 후지보 어패럴로 나누어 주면서, 후지보 파이버를 존속시키고, 나머지 후지보 텍스타일을 흡수합병하였다.

동시에 (구) 후지보 파이버의 사명을 후지보 텍스타일로 바꿨다. 이런 재편은 사업을 스피드화하고, 실사업을 다시 일으켜, 앞으로는 텍스타일 사업이나 제품사업과 함께 일체가 되어 추진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후지보 어패럴로 옮긴 사업도 동사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개혁 등과 상승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후지보 고사카이(小坂井)가 재편대상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화학제품 사업이 순조로워, 단독으로도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체질로 되어 있다.”는 등이 이유로 되어 있다. 동사의 섬유사업은 앞으로 용융방사 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해 나갈 생각이다.

하반기에는 남아 있는 과제인 실 사업을 다시 살려나갈 것이며, 특히 도요

하마(豊浜) 공장보다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오이다(大分) 공장의 체질을 개선하여, 소로트 다품종 생산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상품면에서는 오직 면사에만 전념하는 차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자가소비비율을 올릴 것이다.

해외사업은 그동안 강화해오고 있는데 태국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2007년 5월에 오이다 공장에 있던 코어 얀 설비를 타이 후지보 텍스타일(TFT)로 옮겨, 특수사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월 5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10월에 증설하여 월 10톤으로 늘렸다. 또한 2006년부터 정지시킨 고야마 니트공장의 원형편기를 TFT로 옮겼다. 현재는 원형편이나 베어 평편(bare plain stitch : bare - 다른섬유의 실로 spandex를 covering하지 않은 裸絲)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형 양면편(circular interlock knitting) 등으로 상품종을 늘리는 등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생산하는 소재를 베트남 봉제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제성 후지보(諸城 富士紡)의 사업을 강화하면서, 후지보 텍스타일 상하이 사무소를 만들어, 중국에서 소재 비즈니스를 넓힐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상하이에서 판매는 패션 텍스타일 센터가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 선염직물 등이 중심인데, 제성 후지보와 연결시켜 니트로까지 넓혀나갈 생각이다.♣